

기독교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본 평신도신학

이 석 철
〈기독교교육·교수〉
chan3@kbtus.ac.kr

I.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정신을 되새기며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교권주의적 교회 성직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평신도들의 성경적 위상을 회복시켜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었다. 특히 만인제사장 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은 ‘평신도신학’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평신도신학의 선구자인 Hendrik Kraemer가 평가했듯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불행한 결과”로 인해 “오늘날 또다시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와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소명을 받고 있다.”¹⁾ 이런 시대적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평신도신학의 정립과 교육의 가능성을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고 은준관은 강조한다.²⁾

1) Hendrik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유동식 역 (서울: 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81-2.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상호협력적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갖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 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건들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신도 구비사역자로서 목회자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신도 구비사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독교 성인교육으로서 평신도 구비사역을 이해하고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본 연구는 평신도신학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성인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평신도신학의 역사적 배경

1. 초대교회 이후 중세기까지의 변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위해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적 원형은 변질됐다. 은준관은 이 “역사적 변질”을 둘로 구분하여 “사역의 교권화”와 “사역의 주관화”로 명명했다.³⁾ “사역의 교권화”는 사제주의 또는 성직주의라고도 하는데 Kraemer는 이런 “교회의 성서적 개념으로부터의 이탈”이 2세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 때부터 교부들이 성직자들로부터 일반 성도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후

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33.

3) Ibid., 237-8.

교회는 “거대한 조직체”가 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두 부분의 구성체를 갖는 조직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⁴⁾ “사역의 주관화”는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여러 종파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성직주의를 배격하며 2-3세기에 나타난 수도원운동과 금욕주의운동은 교회의 교권화에 대한 역반응 현상이었다.⁵⁾ 종파 운동은 중세기에 이르러 왈도파(Waldensian) 운동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가톨릭교회법을 무시하고 전통적 성경해석을 따르지 않는 ‘주관주의적’ 설교로 인해 박해와 출교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의 성례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의 계급적 성직 제도를 거부했다.⁶⁾

Kraemer는 이런 역사적 변질이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교회사의 경향”이 ‘제도적인 교회’ 쪽으로 더 치우쳐 흘러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⁷⁾ “역사적 힘의 압력” 즉 사회적 및 정치적 압력과 교회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도력과 권위가 요청되었던” 상황이 빚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무튼 교회가 “성서적인 형태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교리와 권위의 단체로 발전하였다”⁸⁾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2. 종교개혁으로 인한 회복의 시작

12세기 이후에는 여러 종파가 중세교회의 교권주의에 대한 도전과 반발을 거세게 했다. 14세기 John Wycliffe의 저항 운동이 그 중 하나이다.

4)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8-9.

5) Howard Grimes, *The Rebirth of the Laity* (New York and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48,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39에서 재인용.

6) 김동순, “왈도파,” [온라인 자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77XX61300857>, 2017년 10월 15일 접속.

7)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62.

8) Ibid., 65.

그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성경에 근거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 했던 이 운동들은 마침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평신도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⁹⁾ 은준관은 이에 대해,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적 평신도 지상주의라는 양극단의 틈바구니에서 Martin Luther의 교회론과 만인제사장 사상을 통해서 성경적인 평신도신학이 새롭게 시도된 것이라고 보았다.¹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만인제사장론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적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권력화한 교회와 기득권층에 반기를 든 혁명적 사상이었다. “신학적 논의에 관한 한,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도 또 위대한 사역론이며, 동시에 평신도론”¹¹⁾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Kraemer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만인제사장론은 실제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의 “원리 선언”으로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영적인 미숙 상태에 있던 평신도들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설교를 통한 성경교육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 평신도가 아닌 전문 성직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적 차별 철폐가 원리적으로는 주장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성직자’를 다시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¹²⁾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정치, 경제적 기득권 세력인 영주들과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은 일반 서민들과 평신도

9) Ibid., 70.

10)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40.

11) Ibid., 241-2.

12)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72-4.

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실제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발발한 것이 독일 농민전쟁이나 아나뱃티스트 운동이었다. 특히 신앙과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 일어났던 것을 가리켜 ‘종교개혁 좌파운동’ 또는 ‘급진적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한다.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운동들의 주요 특징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평신도가 주도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반교권적 “평신도 회복운동”이었다.¹³⁾ 이 과정에서 유럽의 비가톨릭 진영은 국가교회의 형태로 “또 다른 성직주의”로 나간 주류 개신교회(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와 평신도 중심의 종파들로 나뉘는 분열의 불씨를 남겼다.¹⁴⁾

3. 20세기의 평신도신학 정립

성경적 평신도신학 정립의 역사적인 과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신도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럽의 신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됐다. 가톨릭 신학자인 Yves Congar와 네덜란드 출신으로 개신교 예규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였던 Kraemer가 거의 동시에 평신도신학의 기념비적인 저술들을 출간한 것이다. 먼저 평신도신학에 대한 관심의 물꼬를 튼 것은 1957년에 출간된 Congar의 *Lay People in the Church: A Study for a Theology of the Laity*였다. 이 책은 가톨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동등한 존엄성을 선포하고 ‘평신도 사도직’ 개념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 획기적인 변화의 결과로 수 세기 동안 가톨릭 평신도에게 억제됐던 성경읽기가 허용됐다.¹⁵⁾ 홍병룡은 이러한 변화를 ‘평신도 시대’의 개막으로 평가했는데, 실로 그 이후 가톨릭 진영에서는 평신도신학과 관련한 많은 활동과

13)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42.

14) Ibid., 242-3.

15)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8.

저술들이 있었다.¹⁶⁾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평신도를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평신도의 위치에 대하여 가장 활기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Kraemer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가장 ‘성직자적’이고, 교회를 주로 성례전을 베푸는 조직체로 여기는 가톨릭교회로서는 이런 변화가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고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¹⁷⁾

개신교 진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평신도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그 이전 400년 동안 교회가 무관심했던 평신도 문제에 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데 공헌했으며,¹⁸⁾ 평신도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비로소 ‘평신도신학’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었다.¹⁹⁾ WCC의 평신도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Kraemer는 평신도신학의 고전이 된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A Theology of the Laity*)을 1958년에 출간하게 된다. 이 기념비적인 저술은 이후 많은 평신도 관련 저술과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평신도신학과 운동은 제3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Robert Banks는 제3세계에서의 한 사례로 공동체에서의 성인학습을 통해 의식을 개혁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중 하나는 브라질의 성인교육가인 Paulo Freire의 교육이념과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²⁰⁾

4. 우리나라의 평신도신학 현황

WCC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평신도신학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16) 홍병룡, “평신도와 평신도운동: 제2의 종교개혁,” 『복음과 상황』, 1996년 5월호, 52.

17)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80-1.

18) Ibid., 50.

19)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43.

20) Robert Banks,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한화홍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223-8.

라 개신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평신도 훈련으로 폭넓은 반향을 일으켰던 옥한음 목사는 1980년대 초부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1984년에는 자신의 철학과 사역을 담은 『평신도를 깨운다』²¹⁾는 저술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²²⁾ 평신도에 관한 한국교계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고 1986년에는 총신대학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²³⁾ 1992년에는 옥한음 외 7인에 의한 소책자 『평신도』²⁴⁾가 출간됐으며, 1997년에는 심일섭의 『평신도신학과 한국교회의 미래』²⁵⁾가 나왔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토착화 운동을 평신도신학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듬해에 출간된 김점옥의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²⁶⁾는 주로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리더의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분야의 발전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보다는 교회성장을 목적으로 한 평신도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당시 평신도교회 운동을 실천하던 최승호가 1998년에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²⁷⁾이라는 저술을 통해 성직자 중심의 교회와 상반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교단체’라고 불려온 교회병행 단체들의 평신도운동이 1950~1960년대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펼쳐져 온 점도 특이하다. 그중에서도 한국기독교학생회(IVF)는 대학생층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21) 이 책은 1998년에 수정본으로 다시 출간됐다. 옥한음,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1998).

22) 홍병룡, “평신도와 평신도운동: 제2의 종교개혁,” 53.

23) 그 때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인물은 김의원, 이형기, 홍경길, 손봉호, 김동길, 김경림이었으며, 심포지엄 자료는 1988년에 출판됐다.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편, 『목회자와 평신도』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8).

24) 옥한음 외 7인, 『평신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25) 심일섭, 『평신도신학과 한국교회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7).

26)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문사, 1998).

27) 최승호,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 (안양: 도서출판 대장간, 1998).

평신도신학 정립과 평신도운동의 실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평신도 신학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송인규 교수의 저술들을 보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사역 연구회’를 통해 평신도신학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²⁸⁾ 평신도 문제에 관한 연구와 출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은 평신도신학연구소와 월간지 『복음과 상황』이다. 평신도신학연구소에서는 일찍이 Kraemer의 명저인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을 출간했고, 『평신도 주석』을 펴냈다. 『복음과 상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평신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왔다. 그중에는 “송인규 교수가 들려주는 평신도신학 강의” 시리즈 기획물이 있었다.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평신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는 방선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랜드의 직장사역연구소, 그리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꼽을 수 있다.²⁹⁾

Ⅲ. 평신도신학의 주요 내용

1.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라오스’(λαος)

평신도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의 문제이다. Kraemer는 평신도 문제를 논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교회론을 요구하는 것”³⁰⁾이라고 보았다. Congar도 “근본적으로 유용한 한 가지의 평신도신학만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총체적 교회론”이라고 했다.³¹⁾ 이들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전

28) https://1391korea.net/bbs/board.php?bo_table=main_shtml&wr_id=2&page=. 2017년 10월 15일 접속.

29) 홍병룡, “평신도와 평신도운동: 제2의 종교개혁,” 53.

30)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58.

31) Yves M. J. Congar, *Lay People in the Church: A Study for a Theology of the Laity*, trans. D. Attwater (Westminster,

개한 평신도신학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가?’의 문제였다. 전통적 입장은 한 마디로 “사제 없이는 교회가 없다”는 ‘사제주의’ 또는 성직자 교권주의였다.³²⁾ 이는 “교직자(성직자)와 교회를 동일시하는”³³⁾ 입장으로 이후 만인 제사장론에 의해 비성경적인 것으로 도전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진영에서는 교회를 이루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조차도 여전히 “낡은 방식의 뚜렷한 흔적”을 담고 있을 정도로 성직자 중심의 교회관은 강하게 지속했다. 예컨대, “주교[감독] 안에서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 믿는 자 가운데 현존하신다.”³⁴⁾는 규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동 문서가 평신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평신도들은 스스로 교회를 ‘구성’하지 못하며 오직 사제들에 의해 구성된 교회를 위해 ‘공헌’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이 같은 가톨릭교회의 교회론과 평신도를 보는 견해는 오늘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 사제들을 하늘의 원로원으로 마치 사도단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³⁶⁾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신학자들이 천명해 온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성경적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라오스’(laos)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는 사실을 발견

Maryland: Newman Press, 1957), 13,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15에서 재인용.

32) 이재근,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 평신도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16.

33)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73.

34) *Vatican II*, 40,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41에서 재인용.

35)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41.

36) 『가톨릭교회 교리서』, 1554항, 이재근,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 15에서 재인용.

했다. 그런데 1세기 말 로마의 Clement는 ‘평범한 무리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라이코스’(laikos)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했다. 그 후로 이 말은 성직자와 구별되는 계층으로서 평신도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³⁷⁾ 이 단어는 라틴어 ‘라이쿠스’(laicus)와 영어의 ‘레이’(lay, 명사형은 laity)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성직자나 전문가와 구별되는 평신도 또는 비전문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³⁸⁾ 이처럼 교회 역사에서 외면당했던 성경적 단어 ‘라오스’는 신분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단어이다. 만일 성직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종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³⁹⁾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안에 필요에 따라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Stott는 그것이 ‘제사장과 백성’의 구분이 아니라 오직 ‘회중과 리더’의 구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직에 속해 있는 평신도(라오스)가 아니요 평신도(라오스)에 속해 있는 성직”이라고 했다.⁴⁰⁾

평신도신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인 R. Paul Stevens는 “진정한 성경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한 백성 신학’의 정립을 역설했다.⁴¹⁾ 그는 하나님의 백성 즉 ‘라오스’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을 “성직 평신도”와 “비 성직 평신도”라고 구별하기도 했다.⁴²⁾ 그가 이런 표현을 쓴 의도는 이해할

37)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37-8.

38)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58.

39) 임세일, “목회자의 정서, 평신도의 정서,” 『복음과 상황』, 1996년 5월호, 60.

40)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42, 48.

41)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10-1.

42)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13.

수 있지만, ‘성직 백성’과 ‘비 성직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라오스’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더 잘 살려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이미 전문 ‘성직자’와 구별되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성’ 대신 ‘성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라고 할 때 목회자를 제외한 개념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Stott의 저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번역되어 나올 때 종전의 제목인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대신 “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원서의 제목도 *One People*이라는 점을 볼 때 더 나은 제목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2.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온 또 하나의 주제는,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성직자 중심의 교권주의적 행습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위치나 역할을 성경적인 근거로 규명하고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였다. 초기 교회의 모습은 ‘조직체’라기 보다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제자’와 ‘성도’였다.”⁴⁴⁾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사도, 집사, 장로 등으로 불리던 사람들이다. 이렇듯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의 성직자는 아니었다고 Gibbs와 Morton은 강조한다. 다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기 섬기는 일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교회의 신도들”이 있을 뿐

43) John R. W. Stott, 『한 백성』,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44) 이재근,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 20.

이었고 그것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분명해진 것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 사람들의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오갔던 특별한 장소로 옮겨졌을 때”라고 그들은 보았다.⁴⁵⁾

평등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불평등하고 계급적인 구조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평신도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한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계급적인 교권주의일 뿐, 지도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Gibbs와 Morton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유기적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조직체이기도 한데, “조직이란 어떤 종류의 구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⁴⁶⁾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평신도신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송인규는 ‘신분’과 ‘직분’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은 평등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다르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서로 다른 범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나 장로 등의 ‘일꾼’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행 15:23; 엡 3:7-8).⁴⁷⁾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역할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다뤘다. 예컨대, Stott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 ‘구별’은 존재하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⁴⁸⁾

45) Mark Gibbs & T. Ralph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35-6.

46) Ibid., 38.

47) 송인규, “한국 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 평신도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67-70.

48)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29.

3. 사역 주체로서의 평신도

평신도신학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평신도로 하여금 본연의 위치를 찾고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신도신학자가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논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즉 평신도가 교회의 사명 성취를 위한 사역의 주체라는 것이고, 그 사역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역 주체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평신도의 문제에 대해 "그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열망하기조차 한다"고 Stevens는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평신도신학에서는 교회 사명이 목회자의 사역만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주어진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Stott는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위탁한 책임은 그의 전교회에 위탁한 것"으로 "성직자만의 소유도 아니며 평신도들이라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⁵⁰⁾ 이런 관점에서 평신도신학자들은 교회사명 수행에 있어 평신도들이 진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10절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선택성' 못지않게 또 다른 차원 즉 '선택의 목적'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다.⁵¹⁾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소명'의 관점에서 논하며 평신도의 사역과 연관 짓기도 한다. 평신도들 역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신도의 '사역 영역'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다. 많은 사람이

49)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10.

50)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27.

51)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34.

에베소서 4장 12절의 “봉사의 일”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섬김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봉사의 일은 교회 밖의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사역이라는 점을 평신도신학에서는 강조한다. 물론 교회는 내부적인 사역의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지나치게 대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는 “교회 자체를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는 성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⁵²⁾는 것이다. 실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부의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침례교 신학자인 Walter B. Shurden도 이 점을 강조하며,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있다. 선교의 사명이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⁵³⁾고 단언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분산”으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직보다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⁵⁴⁾ 이는 곧 평신도들이 사역해야 할 영역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최전선’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임을 뜻하는 것이다.⁵⁵⁾ 이 점을 강조하며 Banks는 평신도사역을 위해 직업윤리, 정치와 경제 문제, 여가의 사용 등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⁵⁶⁾ 우리나라의 직장사역연합대표이자 이랜드 기업의 사목인 방선기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을 하나의 체계적인 신학주제로 다루자는 제안을 했다.⁵⁷⁾

52)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23.

53) Walter B. Shurden, 『성서적 제사장론』, 이상훈 역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87), 74.

54)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45.

55) Gibbs &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12.

56) Robert Banks,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223.

57) 방선기, “신학교육주제로 생각하는 일상생활의 신학,” 『Seize Life』, 2009년 8월, 33-44.

IV.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성인교육의 과제

1. 목회에 대한 교육적 이해

평신도신학을 이론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삶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목회자들의 교육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기독교 성인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제이다. 물론 교회에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평신도’라는 의미는 성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교육자로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과제는 목회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분명히 정립하는 일이다. 목회는 곧 교육이며 목회자는 교육자라는 이해를 갖고 교육적으로 목회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목회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영적 목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의 본질이 교육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먹이고, 보호하며, 치료하는 것이 목양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먹이는 것이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못된 사상과 행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딤후 3:2)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도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목회를 위한 중요한 근거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것으로, 역시 교육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교육적 지상명령’(The Great Teaching Commission)⁵⁸⁾이라고도 일컫는 것

58) Kenneth O. Gangel, “The Great Teaching Commission,” *Directing Christian Education: The Challenging Role of the Christian Education Specialist*, Michael S. Lawson and Robert J. Choun, Jr. (Chicago: Moody Press, 1992), 37.

이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목양’하셨고 성경은 전형적인 그분의 모습을 가르치는 ‘선생’(didaskalos)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가 목회라는 것을 교육적인 사역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평신도신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방선기는, 많은 목회자가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만 ‘지상명령’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은 목회의 필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⁵⁹⁾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교회의 지도자 중 ‘목사와 교사’도 사실상 하나의 직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앞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 각각 헬리어 정관사가 사용되었지만,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 앞에 단 하나의 정관사가 붙여진 것은 이 둘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직분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목사 즉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목사’를 뜻하는 것으로, 그만큼 목사의 본질적 역할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직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 ‘목사’(牧師)라고 쓰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목사를 가리켜 ‘가르치는 장로’라고 일컫는 장로교의 전통도 목회의 교육적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목회자의 교육적 역할은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식의 형식교육을 떠올리며,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이란 가치 있는 것의 전수,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인간 성장 가능성의 신장이며,⁶⁰⁾ 그 범위는 형식을 갖춘 것에서부터 형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매우 넓다.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의 교육도 이처럼 넓은 의미의 가르침인 것이다. 목회자의 교육적 역할도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목회자의 모든 목회적 활동은 가르치는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설교와 강의, 상담과 훈련, 각종 의식과 회의의 집행, 비형식적인 대화와 회합 등이

59) 방선기, “올바른 교회교육을 정립하자,” 『목회와 신학』, 1990년 3월, 40.

60) 권건일, 『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2000), 19-20.

포함된다.⁶¹⁾ 특히 선포인 동시에 가르침인 설교는 목회자의 주된 교육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교육적 역할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신도 교육자로서의 목회자는 성인교육자로서의 역량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에 대한 이해와 ‘안드라고지’(andragogy, 성인교육학)의 관점에서 성인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리더십을 함양하는 일이다. 한준상은 이것을 프로그래머와 학습조력자의 역할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설정했다: 자료수집 기술, 지적 능력, 의사결정 능력, 대인관계 및 상담 능력, 지역사회 참여기술, 교수-학습 및 자료제시 능력, 성인학습평가 능력.⁶²⁾

2. 평신도 구비사역의 교육목적과 내용

목회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평신도가 성장하고 사역하도록 돕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핵심적 내용은 11절에 열거된 당시 ‘성직자’들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12절)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목회를 ‘평신도 구비사역’(equipping ministry)라고 할 수 있다.⁶³⁾ 그런데 평신도 구비사역으로서 목회를 수행할 때 목회자의 교육적 역할은 중요하게 대두된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을 뜻

61) Richard Rehfeldt, “The Road to Educational Ministry,”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ed. Richard Allan Ol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33.

62) 한준상, 『모든 이를 위한 안드라고지』 (서울: 학지사, 2000), 133-5.

63) Sherman Williams,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ed. Werner C. Graendorf (Chicago: Moody Press, 1981), 234.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신도 구비사역으로서의 교육목적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두 요소는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하며 그중에서도 성숙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적절한 성숙이 없이는 효과적인 사역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역이라는 것이 성숙함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면, 평신도교육의 목적은 한 마디로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일반 성인교육에서도 ‘성숙한 인격의 형성’은 ‘포괄적 교육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⁶⁴⁾ 목회자의 평신도 구비사역에서 추구해야 할 ‘성숙’이라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을 향하여 “범사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엡 4:13-15)

그런데 교회의 평신도교육은 성숙함보다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다수의 평신도 훈련이 영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나 선교단체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송인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봉사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것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그런 내용의 교육과 훈련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거나 목회자의 목회 전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⁶⁵⁾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신도 구비사역은 ‘일꾼’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성도 개인의 성숙을 돕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로 표출

64) W. Hallenbeck, “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with Reference to Adult Education,” n.d. (Mimeographed), cited by W. L. Schroeder, “Adult Education Defined and Described,” in *Handbook of Adult Education*, ed. R. M. Smith, et al. (New York: Macmillan, 1970), 33-4.

65) 송인규, “교회 봉사가 희귀 현상이 되다,”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 157.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⁶⁶⁾이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한 옥한음의 입장은 잘 설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성숙과 사역’이라는 평신도 구비사역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평신도의 전인적 성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두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첫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게 해주는 성경교육이다. 둘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 삶의 주요 문제에 잘 대처하게 도와주는 생활훈련이다. 교회는 이 ‘말씀과 삶’이라는 두 가지 내용 영역에서 평신도들의 전인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영역을 교육내용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어떤 일정 기간의 교육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인적 성숙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평신도 구비사역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일부분으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침례교회는 성경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 왔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교육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성인 신자들이 성경을 학습하는 양이나 질은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설교를 듣는 것 외에 평신도들이 개인 혹은 소그룹으로 직접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균형 있고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인의 수준에 맞게 올바른 해석 능력을 길러서 단순한 사실적 지식을 넘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생활훈련의 영역은 성경교육에 추가하여 교회가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다. 미국의

66) 옥한음,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194.

남침례교단은 ‘교회훈련 프로그램’(Church Training Program) 체제로 이 교육을 매우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침례교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교육내용 영역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과 일터 등의 ‘생활 전선’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신도신학자들이 저술한 생활훈련에 관한 책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Banks의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한 Stevens의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도 좋은 자료인데, 그가 다룬 주제들은 노동, 가정생활, 이성 관계, 형제 관계, 홀로 있음, 이웃 관계,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이다.⁶⁷⁾

교육목적의 두 번째 요소인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평신도들에게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평신도가 사역은 전문 목회자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목회자들의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역자’라는 말도 목사나 전도사 등의 유급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평신도신학의 기본 원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목회’라는 것은 이 넓은 의미의 사역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목회자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의 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평신도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목회자는 ‘교역자’ 또는 ‘목회자’라고 구별해 부르고, ‘사역자’라는 말이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가르쳐야 할 또 한 가지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67) R.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박영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고,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이 평신도 사역의 주된 자리라는 점이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의 평신도 구비사역이 그들 본연의 '봉사의 일'이다. 하지만 평신도의 '봉사의 일'은 교회공동체 안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며, 주로 세상 삶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 대외적 평신도사역을 통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가 '봉사를 곧 '교회 봉사'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평신도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많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먼저 목회자의 인식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송인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평신도와 목회자에게서 균등하게 찾고 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 매우 힘들지만, "목회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반대를 겪더라도 교우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도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⁶⁸⁾

평신도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훈련 방안으로는 Stevens의 평신도 구비사역 실천서인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가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는 평신도 사역으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활동 영역을 제시했다: 성경교사와 설교가, 소그룹 리더, 돌봄 및 양육 상담자, 예배 인도자와 은사 중개인, 직장 사역자, 이웃 전도자, 결혼 및 가정 사역자, 사회정의 사역자. 그러나 평신도의 사역이란 것은 꼭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신도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신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과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통해 주로 '비형식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8) 송인규,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기: 왜 실현되지 않는가?" 『목회와 신학』, 2015년 8월, 127-30.

3. 평신도 구비사역의 방법

은준관은 평신도교육이 성인교육학으로부터 과정적이며 방법론적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드라고지’의 활용을 제시했다.⁶⁹⁾ 성인교육학에서는 성인들을 교육하는 방식의 기본 원리로서 ‘안드라고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Malcolm S. Knowles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학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분야인 ‘페다고지’(pedagogy)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성인들을 가르치는 문제는 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들은 교육학에서 ‘외면당한 종’(a neglected species)이었다고 말한다.⁷⁰⁾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 성인들에게 하는 교육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안드라고지에서는 성인 학습자가 미성년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회자들이 평신도교육을 할 때 안드라고지의 원리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안드라고지 이론에서 전제로 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성인들은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왜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학습을 돕는 교사의 첫 번째 과제는 학습하게 될 내용의 중요성이나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알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성인들은 미성년보다 자율성 또는 자기 주도성이 더 많은 학습자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미성년교육의 지시적 방식이 아니라 성인의 학습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삶의 경험이 더 많고 성인들의 경험은 질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경험은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을 교육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

69)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73, 283-7.

70) Malcolm S. Knowles,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3rd ed.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Company, 1984), 27. 이 책의 초판은 1973년에 출간됐다.

인의 경험은 학습에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성인의 경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들은 삶의 당면한 필요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준비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성인교육에서는 삶에서 성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들은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성인들에게는 적용과 실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성인들은 주로 내적인 요인에 의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따라서 자긍심을 높이거나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⁷¹⁾ 그러나 모든 성인이 이런 전제와 가정을 다 충족하는 상태에 있지 않고, 또한 교육의 상황마다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편 일률적으로 안드라고지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기주도적 성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상황에 따라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원리를 융통성 있게 조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⁷²⁾

4. 평신도의 자기주도적 학습

성경적 교회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교회 구성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성경적 교회관에 대한 확신을 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결국 성경에서 멀어진 잘못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은 성경적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실로 평신도신학의 구현을 위한 실천과 행동은 성경적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 어려운 과제를 위해 평신도들은 자기주도적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옥한음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가 평신도를 ‘깨우는’ 노력을 기울

71) Knowles,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51-63.

7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87.

여왔지만, 평신도들이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배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성인교육에서는 학습의 자발성을 하나의 대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⁷³⁾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성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원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적용될 필요가 있다. 실로 오늘날 평생학습 사회에서 성인들은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배움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성숙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평신도교육 상황은 지나치게 목회자 의존적이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상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목회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성서를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해서는 목사나 교사에게 항상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의존심을 길러주는 경향”⁷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관을 비롯해 평신도의 책임과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평신도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자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평신도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을 가르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거나 이 주제에 대해 배우는 방법을 몰랐다고 이유를 댈 수는 없는 것이다. 평신도교육은 “철저하게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배우는 학습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⁷⁵⁾이다. 목회자의 역할이 평신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평신도의 역할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노력을 통해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며,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 Stevens는 목회자의 자기 인식이 중요하지만, 평신도의 자기 인식

73) 이현청, 『학습하는 사회』 (서울: 배영사, 1993), 31-2; 332-3.

74) Gilbert A. Peterson, 『성인 기독교교육』, 이정효 역 (서울: 마라나다, 1988), 100.

75)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273.

에도 “중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사명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성경의 평신도, 하나님의 ‘라오스’는 ‘교육 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인 문외한’을 뜻하는 ‘라이코스’와는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찬사”⁷⁶⁾이다. 이 성경적 진리 하나만을 깨달아도 평신도의 자아 정체감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 많은 평신도는 자신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동적이며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성도의 의미를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⁷⁷⁾ 이 같은 잘못된 생각과 태도는 성경적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의 학습은 문제해결의 열쇠인 것이다.

평신도의 학습은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회가 변화돼야 할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에 앞장서는 평신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회의 생활과 가르침과 훈련이 교회 자체보다는 직장과 가정, 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해야 한다.”⁷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주장하는 대로 곧바로 받아들여지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Gibbs와 Morton은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교회 안에서 “귀찮은 존재”가 되는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평신도의 첫째 의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건설적인 주장과 제안과 질문들은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야한다고 함으로써 평신도들의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⁷⁹⁾

76)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7.

77) 임세일, “목회자의 정서, 평신도의 정서,” 60.

78)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22.

79) Gibbs &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149.

V.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 고찰한 ‘평신도신학’이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특히 만인제사장 사상을 통해 전통 가톨릭교회의 사제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성경적 교회론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평신도신학의 형성은 ‘원리 선언’만으로 끝난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 원리를 재천명하고 실천했던 역사적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는 가톨릭교회와 루터교, 영국국교회, 그리고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했던 주류 개신교단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본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역시 국가의 기득권 정치 세력의 편에 서서 “또 다른 성직주의”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해 Kraemer는 말하기를, 새로이 탄생한 이 진영의 ‘교직자’[교역자]들은 “분명히 여러 모로 보아 예전의 ‘성직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⁸⁰⁾고 했다.

자유교회 전통에서 제도권교회에 순응하지 않고 ‘분리해 나왔던’(non-conformist) 침례교도들은 사실 이와 같은 역사 속의 평신도신학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평신도신학에서 내세우는 주장들과 근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종교개혁의 주요 교리인 믿음에 의한 구원, 성경의 권위, 만인제사장론이 침례교도들의 전통적 신앙과 일치하는 것과 같다.⁸¹⁾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개혁이나 평신도신학의 주요 교리들이 그것을 애초에 주장했던 진영보다 자유교회 전통에 있는 진영에서 더 잘 정착되고 발전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평신도신학의 단초가 됐던 Luther의 만인제사장 교리가 오히려 회중주의를 실천하는 “침례교회와 같은 자유교회 전통에 뿌리를 내렸다”⁸²⁾는 사실이다.

80) Kraemer,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82.

81) Fisher Humphryes, *The Way We Were: How Southern Baptist Theology Has Changed and What It Means to Us All* (New York: McCracken Press, 1994), 23-32.

평신도신학은 침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신학이다. 평신도신학의 핵심은 교회론이고, 침례교회의 특성이라는 것도 주로 교회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침례교회가 비록 역사적으로는 평신도신학 운동과의 연결점이 없더라도 성경적 교회론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는 신학 사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다. 침례교회가 굳이 평신도신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지금까지 지켜온 자랑스러운 성경적 교회론의 유산을 잘 계승하며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과거 종교개혁처럼 단지 '원리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제도교회나 성직주의 같은 요소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며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큰' 교단들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 신앙과 행습을 지켜온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특히 목회자는 평신도를 가르치는 성인교육자로서의 의식과 역량을 가지고 평신도를 성공적으로 구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주도적이고 솔선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남병두. 『침례교회 특성 되돌아보기: 신약성서적 교회 회복을 위하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 방선기. “신학교육주제로 생각하는 일상생활의 신학.” 『Seize Life』. 2009년 8월, 33-44.
- _____. “올바른 교회교육을 정립하자.” 『목회와 신학』, 1990년 3월, 40-4.
- 송인규. “교회 봉사가 희귀 현상이 되다.”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 150-8.

82) 남병두, 『침례교회 특성 되돌아보기: 신약성서적 교회 회복을 위하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20.

- _____.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기: 왜 실현되지 않는가?” 『목회와 신학』, 2015년 8월, 124-31.
- 심일섭. 『평신도신학과 한국교회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77.
- 옥한음 외 7인. 『평신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옥한음.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1998.
-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이현청. 『학습하는 사회』. 서울: 배영사, 1993.
- 임세일. “목회자의 정서, 평신도의 정서.” 『복음과 상황』, 1996년 5월호. 56-61.
-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편. 『목회자와 평신도』.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8.
- 최승호.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 안양: 도서출판 대장간, 1998.
-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 평신도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 한준상. 『모든 이를 위한 안드라고지』. 서울: 학지사, 2000.
- 홍병룡. “평신도와 평신도운동: 제2의 종교개혁.” 『복음과 상황』, 1996년 5월호, 48-55.
- Banks, Robert.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4.
- Gangel, Kenneth O. “The Great Teaching Commission.” *Directing Christian Education: The Challenging Role of the Christian Education Specialist*, ed. Michael S. Lawson and Robert J. Choun, Jr. Chicago: Moody Press, 1992.
- Gibbs, Mark & T. Ralph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Hallenbeck, W. “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with Reference to Adult Education,” n.d. (Mimeographed), cited by W. L. Schroeder, “Adult Education Defined and Described,” in *Handbook of Adult Education*, ed. R. M. Smith, et al. New York: Macmillan, 1970.
- Humphreys, Fisher. *The Way We Were: How Southern Baptist Theology Has Changed and What It Means to Us All*. New York: McCracken Press, 1994.

- Knowles, Malcolm S.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3rd ed.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Company, 1984.
-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유동식 역. 서울: 평신도신학 연구소, 1994.
- Peterson, Gilbert A. 『성인 기독교교육』. 이정효 역. 서울: 마라나다, 1988.
- Rehfeldt, Richard. "The Road to Educational Ministry."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ed. Richard Allan Ol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 Stevens, R.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출판부, 2001.
- _____.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박영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_____.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_____.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Stevens, R.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 브러리, 1997.
- Stott, John R. W. 『한 백성: 변하지 않는 교회의 특권 4가지』.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 _____.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Williams, Sherman.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ed. Werner C. Graendorf. Chicago: Moody Press, 1981.